



[금융] KB '허인호' 1년 글로벌 도전-리딩뱅크 수성 플라보 05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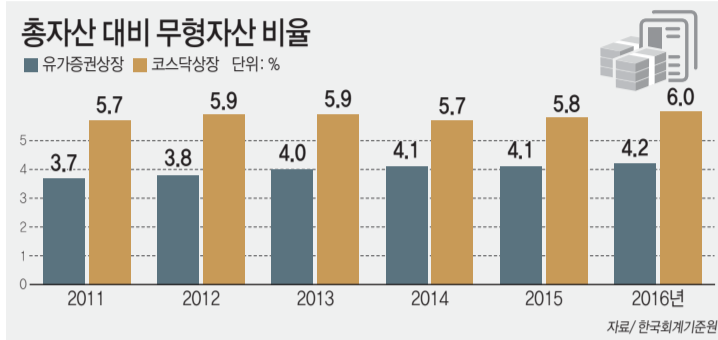
코스피	2082.58 (-17.98)	코스닥	690.81 (-11.32)
금리 (연이자율)	1.94 (0.00)	환율 (1달러)	1125.80 (-2.80) (20일)

# R&D 등 까다로운 무형자산 회계, 4차산업 '발목'

## 대한민국 회계산후사

### 회계는 중세시대

'무형자산' 회계처리 논란 상장사 재무제표상 5% 불과 연구개발 경과, 사업모형 등 비재무정보 공시 확대해야



로 보여주는 목적이 아니라 가치 평가의 기초자료라는 점을 인정 하더라도 괴리율이 크다. 시가총액 1000억원의 기업이 재무제표 상 자산은 1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서영미 한국회계기준원 책임 연구원은 "애널리스트 등 일부 주요 정보이용자들은 재무제표 상 무형자산 정보를 기업가치 평가 과정에 있어서의 잠재적인 편향 (bias) 요소로 간주한다"면서 "결국 기업 분석 과정에서 이를 배제 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회계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회계는 무형자산을 인식 하는 경우에도 최초 인식 시 원가로 측정할 것을 요구하며 후속 측정 시 재평가모형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핵심 가치동인(key value driver)인 내부창출 무형자산의 대부분

국회회계기준(IFRS) 도입, 외부감사법 개정 등 회계 지도가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구시대적인 회계기준은 기업 가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기업의 무형자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현행 회계는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 등이 겨우 무형자산으로 잡힐 뿐이다. 재무제표가 더 구체화되고, 비재무정보 공시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현재 무형자산 가치를 제대로 담지 못한 재무제표는 주가와 기업 가치의 괴리만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총 1000억 기업, 재무제표 자산 100억원 불과

실제 지난해 기준 주시가지 대비 재무제표 순자산 비율의 경우 테슬라는 8.6%, 페이스북은 13%, LG생활건강은 16% 수준이다. 재무제표가 기업가치를 그대

드, 독점권 등이 전혀 보고되지 않은 반면 기업이 가입해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이 핵심적인 무형자산으로 인식·보고되는 것이다.

권성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은 "기업가치 창출의 핵심인 무형자산 가치가 크게 증가하는 데도 이를 재무제표에는 나타내지 못하는 점은 분명히 문제"라며 "현재의 재무제표는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제적 실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현행 재무제표는 마치 대폭 생략된 동양화, 산수 수묵화 같다"고 설명했다.

회계가 기업의 무형자산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비재무정보 공시 확대'가 꼽힌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결과, 새로운 사업모형, 체결계약 분석, 위험과 전략 등 내부창출 영업권을 포함한 무형자산 등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것이다.

권성수 상임위원은 "주식가치와 재무제표 순자산의 차이의 원인이 되는 항목들과 그 변동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도록 한다면 재무제표의 효용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메트로미디어 '제3회 뉴테크포럼'

### 차원 다른 연결시대 5G가 열어 갈 세상

2019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 시대가 본격 개막합니다. 12월부터는 5G 방식의 전파도 쏘게 됩니다.

5G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모든 기반이 되는 플랫폼이 변화합니다. 이전보다 월등하게 빨라진 속도와 엄청난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해져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5G는 일상생활 속으로도 들어옵니다.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해 초정밀 위치추위시스템, 자율자동차 등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산업별로는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네트워크로봇 등 5G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을 정도입니다. 군사적으로도 5G는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 1~2회 뉴테크포럼을 통해 인공지능(AI)의 시대의 도래를 미리 살펴본 메트로미디어는 이제 5G의 세계를 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5G가 열어갈 세상은 어떤지, 이를 위한 기술은 어떤 게 있는지, 정책적으로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하는지 등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5G 시대를 메트로미디어 독자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메트로미디어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 제 : 5G, 차원이 다른 연결의 시대 개막
- 일 시 : 2018년 11월 28일(수) 09:00~11:30
- 장 소 :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 최 : 메트로미디어
- 후 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SW·ICT총연합회
- 주요 프로그램
  - 개막식
  - 기조연설: 김형 성균관대 정보통신대학원 겸임교수
  - 패널토론: 김형 교수, KT 최우진팀장, 송영일 서틴스플로어 대표, 박문환 시스코시스템즈코리아 수석부장
- 참가비 : 현장등록 5만원 (사전등록시 무료)
- 참가신청 : 제3회 뉴테크포럼 사무국
- 전화 (02)721-9800, 이메일: forum@metroseoul.co.kr



## 현대상선, 유황저감 컨테이너선 20척 발주

# 친환경선박으로 부활 '벃고동'

### 친환경 메가 컨선 프로젝트

현대상선이 전 세계 해운국가들의 친환경 움직임에 빠르게 대응하며 제2의 전성기를 꿈꾸고 있다. <현지포 4면>

'친환경 메가 컨테이너선 프로젝트'를 통해 올 하반기 총 39만 6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에 달하는 선박을 추가로 발주, 2020년 2~4분기부터 주요 항로에 본격 투입키로 하면서다.

이는 현대상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컨테이너선 총 42만TEU와 맞먹는 규모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 1월1일부터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황산화물 함유량이 0.5% 이하인 저유황유만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다들기관으로 움직이는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 등 선박엔 벃커C유를 사용한다. 그런데 벃커C유에는 유황이 3.5% 포함되어 있다. 유황이 많이 나오는 벃커C유를 뺄수록 바다와 대기의 오염이



현대상선의 8600TEU급 컨테이너선 현대캐리지호가 컨테이너를 싣고 지난 15일 중국 상하이항을 출발해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현대상선의 영문명인 HMM(Hyundai Merchant Marine) 글씨가 선명하다. /김승호 기자

더욱 심각해질 것을 우려해 국제기구인 IMO가 직접 규제기로 한 것이다.

특히 상하이, 선전, 닝보 등 세계 10위권 항만 가운데 무려 6곳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홍콩 포함)은 2020년부터 0.1% 이하의 초저유황유만을 사용한 선박만 양쯔강 하구와 보하이해를 통과 시키겠다고 선포했다. 중국이 IMO보다 한 술 더 떠 더욱 강력한 환경규제를 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현대상선 중국총괄 고위관계자

는 "IMO가 2020년부터 시행기로 한 황산화물 규제는 현재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화두"라면서 "항만 시장 1위인 중국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아예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는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이 뚜렷해 해운사들로서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유황 함량이 낮은 저유황유는 고유황유에 비해 가격이 50% 가량 비싸다.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세까지

맞물리면서 관련 회사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이는 결국 운송료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IMO나 중국의 이같은 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3가지로 꼽고 있다.

저유황유를 쓰거나, 가장 친환경적인 연료로 알려진 LNG를 사용하는 선박으로 교체하는 것, 또 유황저감장치인 스크리버를 기존 선박에 설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초기부담이 전혀 없는 저유황유는 가격이 비싸고, 공급도 일정하지 않아 연료비 예측이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저유황유는 현재 1톤(t)당 450달러인 벃커C유에 비해 200달러 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벃커C유를 사용하는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을 아예 LNG선으로 바꾸기도 쉽지 않다.

<2면에 계속>

/상하이(중국)·광양(한국) 김승호 기자 bada@

## 유치원·재개발 비리 등 9대 생활적폐 근절나서

### 文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게 주문했다.

정부가 불평등, 지위 남용, 사익편취 등을 '9대 생활적폐'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뿌리 뽑기에 나섰다.

9대 생활적폐에는 ▲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가 골고루 포함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생활적폐 근절대책을 보고받고 해당 분야의 적폐 청산을 강력하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크다"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 부패 없는 사회를 위해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으며,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